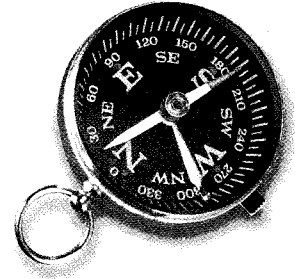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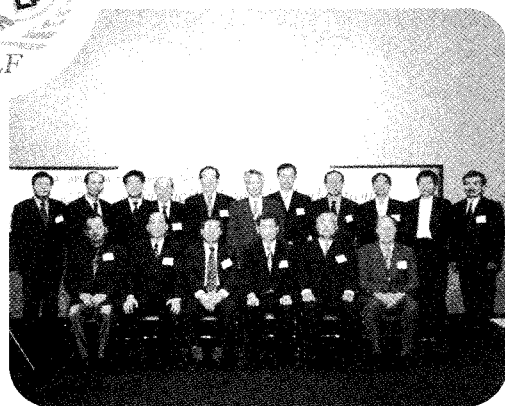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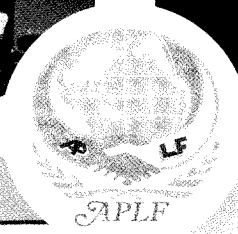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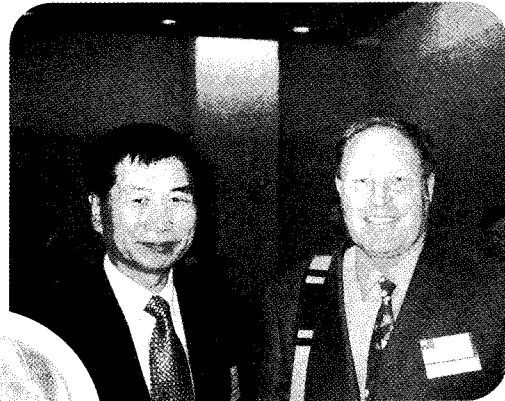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제4회 **APLF** 총회 개최



>>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장, APLF 회장선임

>> APLF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희망-루지양 前APLF회장 인사말

>>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로지스틱스를 제안하는 의미-모토키이나츠키 APLF부회장 인사말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 **APLF** 회장선임

- 동북아 물류발전을 위한 APLF총회 개최 -

동북아 물류발전을 위해 아시아 및 태평양 각국의 물류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물류전문 국제 연맹 단체인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APLF)의 총회가 지난 16일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이 총회는 의장국인 중국의 루지양(Mr.Lu jiang) 의장을 비롯해 9개국 20여명이 참가했다.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은 지난 1995년 일본 동경에서 창설되어 2년마다 중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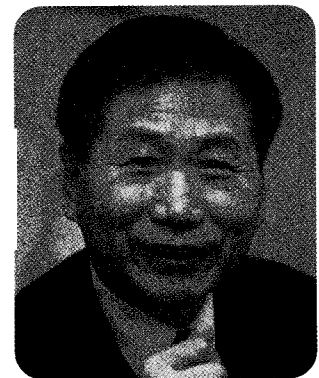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을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국으로는 중국, 일본 및 말레이시아가 선임됐으며, 제 5차 2005년 APLF총회 개최국으로는 일본이 선정됐다.

서회장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제조직의 의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 만큼 이 연맹이 필요로 하는 홈페이지 개설과 상임사무국 운영, 그리고 회원국의 확대 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고 피선 소감을 전했다.

APLF는 회원국간의 로지스틱스 교육과정 및 교수법, 교육자료의 상호협조적 교환 및 관련활동 개선으로 아·태 지역 회원국간의 지식기반적 로지스틱스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로지스틱스의 공동가치를 공유하고 회원국간의 상호 유대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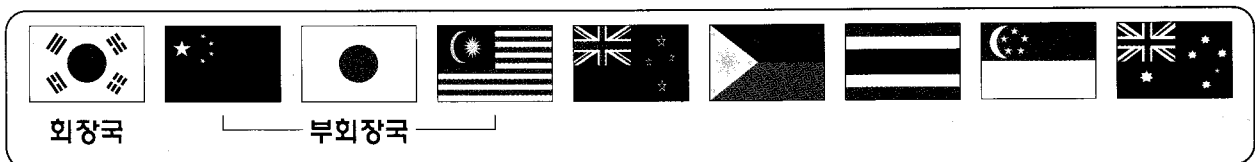
이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회원국들의 물류현황 및 물류컨설팅을 포함한 주요 제반활동, 디지털 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위한 e-로지스틱스 활동현황에 대해 각국별로 보고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15일에는 홍콩, 중국, 일본의 물류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최근 각국의 물류발전과 로지스틱스 신경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및 컨퍼런스 발표를 실시했다. **물류**



서 병 륜
한국물류협회 회장
APLF 회장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국>



APLF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희망

-한국물류의 급속한 성장 놀랍다-



루지양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前회장

금번 제4차 APLF 총회의 개최와 같은 기간에, 한국물류협회에서 2003년 물류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 기간에 APLF 총회에 참석하는 된 저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APLF 및 CFLP 회장으로, 저는 2003년 물류혁신 컨퍼런스 개막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물류는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Pallet 및 컨테이너 Pool 운영 추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왔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병륜 회장은 한국물류협회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물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물류계에서는 이미 저명한 물류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물류발전 경험은 중국이 배우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물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지난 70년대 말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물류업이 급속히 발전한 것은 근래 2~3년전 일입니다. 중국경제구조의 변화와 대외개방 심화는 중국물류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되었습니다.

CFLP는 중국물류가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성립되었으며, 중국 물류와 구매 업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사단조직(社團組織)입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물류 협·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미 2차례 '한국·중국·일본 물류기술 교류회'와 싱가포르 협력 기구인 '중국·싱가포르 물류기업 교류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외 물류협력 활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물류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또한 이러한 면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간 물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경제의 국제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상태이고, 수출입은 한국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입 시장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한국, 일본은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으로 급속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한국 및 아시아 전체에 대해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7일, 한·중·일 정상들은 '한·중·일 3자 협력 및 연합 추진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총리 溫家寶(Wen Jia Bao)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구(自由貿易區) 설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또한 한·중·일 삼국간 협력을 위해 특별히 물류협력 메커니즘과 삼국간 무역 편리화 조치의 점진적인 확대, 촉진을 가능한 빨리 구축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류계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를 원하며,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

陸江(Lu Jiang)

-중국물류구매연합회 회장(CFLP: 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로지스틱스를 제안하는 의미

-글로벌 로지스틱스 시스템 구축의 역할기대-

저는 (사)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의 전무이사로, APLF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나츠까(稲束)입니다.

APLF의 총회가 개최되면서 이번 국제회의와 한국국제물류산업전시회의 초대를 받아,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병륜 회장을 비롯한 (사)한국물류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한국물류혁신대회 개최준비과정의 노고는 대단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업경영에 있어 전체 최적을 추구하는 로지스틱스의 구축은, 각 나라의 경영활동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규모로 최적지(最適地)조달, 최적지생산 등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글로벌 로지스틱스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그 역할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국의 로지스틱스 물류의 전문단체가 협동하고 교류하는 APLF의 존재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APLF총회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로지스틱스의 효율화에 큰 성과를 이끌어 내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 이번 국제회의는 많은 국가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로지스틱스를 제안하는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APLF 총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한국국제물류산업 전시회는 한국의 최첨단인 테크놀로지가 선보이며, 로지스틱스 마인드의 발전을 가슴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물류협회와 정보교류를 하고 우리들로서는 이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든 개최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밀한 제휴를 구축하고, 세계로 향한 로지스틱스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물류협회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류**



모토키 이나츠까
APLF 부회장

-이나츠까 APLF 부회장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 전무이사

Asia Pacific Logistics Federation